로컬플러스

## 군산시의회, 해비타트 자원봉사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15명의 의원과 직원 등 30여 명은 지난 19일 성산면 둔덕리 해비타트 공사 현장에서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해비타트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집을 지어 관내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운동으로, 이날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자에 나선 시의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직접 자재를 나르고, 벽체마감 작업을 진행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생활안전협 신규회원 위촉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지난 18일 생활안전협의회장 이용규 등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안전협의회 신규 회원 위촉 및 월례회의를 열었다.

그간 중앙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는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 순찰, 각종 캠페인 참여,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봉사활동 등 우리 마을의 생활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날 신규회원을 새로이 위촉하여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그간 지속적인 활동으로 치안서비스 향상을 도모해온 생활안전협의회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익산시, 시민토론회 개최

익산시가 23일 오후 2시 모현도서관에서 익산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주민행정서비스 질 저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우리시 인구증대 발전방향을 시민과 함께 토론하여 해법을 찾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금강방송 김경섭 보도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제발표, 시의원, 시민단체, 여성단체, 상공인,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인구증대 발전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 문의는 행정지원과(063-859-5177)로 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 해양경찰 안전사고 대책마련 시급

### 근무위험도 비해 착용하는 구명동의 등 개인보호 장구 형편없어

열악한 장비로 인한 해양경찰관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함정 근무에 맞지 않는 근무복은 안전사고 증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군산 인근 해상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A경위가 경비함정에서 실족,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A경위는 높은 파도로 인해 선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선실 밖 통로를 이동 중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1년에는 EEZ 외측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상치안 점검을 위해 1천 톤급 경비함정에 승선했던 군산해양경찰서장이 실족해 실종 된지 2시간 만에 군산시 어청도 서방 63km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해양경찰관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해상치안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해양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심하게 흔들리는 선체에서 바닷물에 젖은 채 미끄러운 갑판을 수시로 이동하는 등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해경의 근무위험도에 비해 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구명동의 등 개인보호 장구는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비함정 근무자들은 수년이 지난 낡고 냄새나는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전체식(스티로폼 주입) 구명동의로 부피가 크고 활동이 불편하다.

해경에서 사용 중인 구명동의를 부피가 작고 활동이 편한 '자동팽창식구명동의(이산화탄소 카트리지 주입식)'로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찜통더위에는 전체식 구명동의를 입는 것 자체가 자칫 온열질환 마저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함정근무자들은 상시 착용해야하는 구명동의 착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경에서 사용 중인 구명동의를 부피가 작고 활동이 편한 '자동팽창식구명동의(이산화탄소 카트리지 주입식)'로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팽창식구명동의 경우 사람에 물에 빠졌을 때 이산화탄소가 카트리지가 격발되면서 구명동의가 팽창하는 것으로 착용이 간편하고 활동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실제 해상공사 등 바다에서 위험한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간편하게 목에 걸칠 수 있는 자동팽창식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함정에서 착용하는 근무복도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 함정 지휘관급을 포함 대부분의 해양경찰관은 넥타이에 정복, 구두를 착용하고 함정근무를 하고 있다.

경비함정은 좁고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업무상 수시로 선체 외부 갑판에 드나들면서 단속 및 장비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기관실 근무자의 경우 넥타이가 작동중인 장비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크다.

이에 경비함정에 어울리지 않는 넥타이를 풀고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근무여건에 적합한 복장으로 교체가 요구되고 있다.

해양 전문가들은 해양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장비 지원과·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군산=문정곤 기자

# 원광대, 2016년도 하계 졸업 페스티벌 개최

### 박사 59명 · 석사 202명 · 학사 611명 등 872명 학위 수여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는 2016년도 하계 졸업 페스티벌을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교내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페스티벌은 2015학년도 후기 졸업생들을 위한 행사로 신명국 원광학원 이사장과 김도종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번 후기 졸업식에서는 박사 59명, 석사 202명, 학사 611명 등 총 872명에게 학위가 수여됐으며, 도덕, 창의, 소통, 실천 등 MIND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추천된 권아름(토목환경공학과), 남기웅(기계자동차공학부), 이은지(행정언론학부), 김균호(전기공학과) 학생 등 4명이 이사장상 또는 총장상을 받았다.

남기웅 학생은 평균평점 4.46점을 기록해 성적 최우등으로 총장상을 받았으며, 공로상은 주원석(생명과학부), 정민권(경영학부) 학생이 수상했다.

원광대는 졸업생의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 하계 졸업페스티벌을 마련했으며, 특히 김도종 총장이 참석한 모든 졸업생과 일일이 기념촬영을 하면서 격려하고, 식장 주변에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존과 간단한 다과 및 음료를 준비해 참석자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김도종 총장은 훈사를 통해 "학업과정에서 보여준 순수한 지적 열정과 책임 있는 도덕적 행동은 여러분이 기본에 충실한 인재로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원광대학교에서의 학업 수행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역동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영어교육과 이명용 학생 등 5명이 7학기 만에 조기졸업을 했으며, 사회봉사 심화활동, 덕성훈련 심화과정, 선·효행, 나눔 실천 등 도덕적 실천덕목을 수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도의실천인증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 2명에게는 '도의실천인증서'가 전달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산업경제부분 '대상' 수상

군산시가 지난 1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2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산업경제(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며, 매년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활동성과를 심사해 종합 및 부문별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방식은 전문심사위원의 1차 및 2차 공적심사와 인터뷰심사, 만족도 설문조사 등 총 4단계의 심사·평가로 이루어지며, 이 중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군산시는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시정목표로 그간 산업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민선4기 이후 482개의 기업유치를 통한 22조원의 투자 확보와 5만 80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고용현안 공동해결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협약체결 등 풍요로운 지역경제를 위한 민선6기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산단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군산시는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사랑 4대전략을 선정하여 새만금군산 CEO 경제포럼 개최, 기업애로 즉시처리 T/F팀 구성, 산단 출?퇴근 버스 운행 및 근로자 숙소 지원, 산업단지 도로정비 등 28개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 4년 연속 '우수'

군산시 수도사업소 가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음으로써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34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학교수 및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경영시스템 및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군산시는 전년도 88.11점 보다 1.23점 상승한 89.34점으로, 도내 시 단위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특히 '경영개선을 위한 관리층의 리더십과 관심도, 중장기 경영계획' 부분에서 만점을 기록했고, 30여억원의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재무 건정성 확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불량수도관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수도법에 따라 적시성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시, 규제 개혁 기여 공무원 · 부서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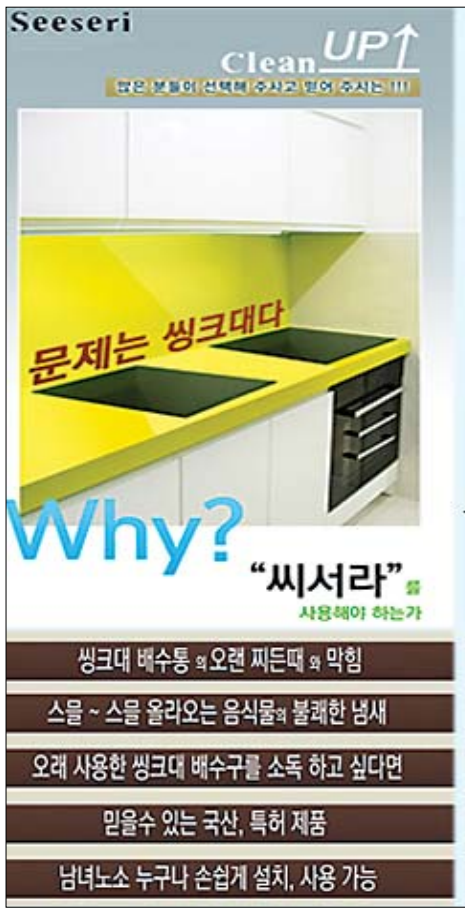
익산시가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여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역맞춤형 규제혁신 등 국민 생활과 밀착된 규제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춰 익산시에서도 지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7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일괄정비 하였고, 올해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총 14건의 자치법규를 추가로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익산시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법령 개선을 이끌어내고, 소극적 행태개선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한 공무원 3명을 선발, 포상금 지급(20만원)과 함께 대우공무원 선발 시 재직 기간 1년 단축·해외견문연수팀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 정부 유공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서 채택된 우수부서에는 BSC실적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제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게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젼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